



아름다운 신선세계 청송군 한동수 청송군수

토목시공기술사로서 대구 지하철건설 본부장을 역임하고 지난 2007년 12월 19일(수) 보궐선거에서 경상북도 청송군수에 당선된 한동수 청송군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인생관과 경영철학을 들어본다.

- 일 시 : 2008년 6월 13일
- 장 소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군수실

■ 먼저 청송군수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군수님의 주요 약력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는 67년 6월 청송군 공무원을 처음 시작하여 토목계장과 농지계장으로 근무를 하고 78년도에 대구시로 진출 하였습니다. 대구시에서 하수국 수원계장, 급수계장을 거쳐 도시계획국 구획 정리계장, 지하철기획단 건설과장, 공사3과장, 건설주택국 도로과장과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마지막으로 4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였습니다.

또, 경일대학교 철도경영학부 겸임교수와 대구광역시 도시계

획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국무총리표창과 대통령표창,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 군수에 출마하고자 했던 계기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오랜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풍부한 행정경험과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 마인드의 경영철학으로 낙후된 저의 고향 청송을 위하여 군민이 잘 살 수 있는 "부자되는 명품청송" 건설에 온 힘을 쏟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청송군청 토목계장부터 대구 지하철건설 본부장을 거치시면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대구지하철 건설사업 입니다. 대구 지하철 1호선 건설사업에 설계 단계에서 구조물 완료 단계까지 초석을 놓았다 고 자부하며 또, 4차 순환도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마무리 하여 지금 구간별로 단계적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하철 2호선 건설에서 준공 개통까지 완수하여 가장 보람이 있었습니다.

토목시공기술사를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기술사로서 향후 "부자되는 명품청송"을 위해 추진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대구~영천~청송간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영천~청송간 2차로 도로를 4차로로 확장 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왕산 관광지 조성 등 관광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거처가는 관광에서 머무르는 관광지를 조성하여 전국 최고의 농촌 휴양 관광도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회활동이 있으신지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원리를 정착 시키고자 하는 뉴라이트 운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안정적이고 점차적인 변화를 통해 청송군의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평소의 생활신조나 좌우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자세와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입니다. 단순히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언제나 청송군의 행정

을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을 위해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입장에서 있어야만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정책이 나오며 진정으로 군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언제나 끊임없이 군민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청송 군수가 되겠습니다.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시지요?

제 처인 황순연과 1남 2녀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기술사회와 기술사 후배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조언해주십시오.

기술사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직업인만큼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정신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국민 모두의 생활과 삶에 직결된 것이고 기술사 스스로가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신뢰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기술사의 명예는 더욱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배양하여 선출직 공직에도 기술사 여러분들이 많이 진출하기를 기대합니다.

